



KIA, 왜 가을잔치 망쳤나

전반기 1위 KIA의 가을잔치가 허무한 실패로 돌아갔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끝난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0-8로 지면서 1승3패로 가을잔치에서 탈락했다.
에이스 윤석민의 완투승으로 준플레이오프 첫 승을 가져왔던 만큼 KIA의 무기력한 3연패는 더 뼈아팠다. 1994년(2패), 2004년(2패), 2005년(1승2패) 앞선 세 번의 준플레이오프에서 모두 탈락했던 KIA는 4번째 도전에서도 1승3패의 성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V10에 빛나는 '호랑이 군단'이지만 미숙했던 마운드 운영, 공격 라인업의 실패, 정신력 싸움에서 밀리며 100% 탈락이라는 KIA의 '준플레이오프 잔혹사'는 계속됐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2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SK 와이번스와 경기에서 8-0으로 크게 뒤지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① **마운드 운영 미숙** 이해 못할 투수 기용·교체 ... 결과는 대 실패
- ② **경험 무시한 타선** 노련한 이종범 대신 패기 미다 24이닝 무득점
- ③ **투지 정신력 실종** '타이거즈 근성' 상실 ... 집중력 싸움에서 완패

◇상대의 허를 찌르지 못한 마운드, 선택의 폭 좁았다.
바라볼데 몰렸던 4차전. 1차전 완투승을 기록했던 에이스 윤석민이 막중한 임무를 안고 다시 마운드에 섰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왜 윤석민이어야 했을까?
KIA는 SK와의 대결을 위해 11명의 투수로 엔트리를 꾸렸다. 부진과 부상으로 활용 여부가 불투명했던 유동훈과 트레이비스도 엔트리에 포함됐다.
3차전 6회 2사 만루. 볼넷에서 대기했던 언더 유동훈과 손영민 중 유동훈이 투입됐다. 올 시즌 계속된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유동훈은 완벽한 공을 뿌리지 못하고 안치용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 이 점수가 이날 양팀이 기록한 유일한 점수였다.
페넌트레이스 패배공식이 포스트시즌에도 그대로 재현됐다. 구위와 자신감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던 '유동훈 카드'의 고집스러웠던 사용은 결국 선수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겼다.
선발 요원이었던 트레이비스는 4차전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후반기 내내 부상을 호소했고 포스트시즌을 앞두고도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다. 오락가락한 폼 상태 때문에 매일같이 컨디션을 확인해야 했고 4차전 되어서야 겨우 마운

드에 올릴 수 있었다.
코칭스태프가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카드도 적었고 과감한 기용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KIA 마운드는 뻔한 공식으로 운영됐다. 윤석민에게 그 책임이 가중된 셈이다.
과감한 변화와 경정구도가 없었던 KIA 마운드의 예고된 몰락이었다.
◇실패한 공격 라인업, 정신력 싸움에서도 완패했다.
KIA 전반기 승리 행진을 이끌었던 특급 3루수 이범호는 포스트시즌의 변수였다.
시즌 주전선수들의 풀바상속이 이범호는 강행군의 중심에 섰었다. 유격수까지 맡으며 피로가 누적됐던 이범호도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순위싸움에 제동이 걸렸고, 조기 복귀로 오히려 부상 회복이 더뎠다.
포스트시즌 이범호의 3루수 기용이 무산되면서 KIA의 베스트 라인업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KIA는 이범호를 지명타자로 돌리고 김상현과 나지완을 외야에 배치하며 공격에 초점을 맞췄지만 타선의 동반 침체 속에 24이닝 무득점으로 가을잔치에서 탈락했다.
노련한 이종범과 김원섭 대신 선택했던 공격 라인업은 공갈포로 전락했다. 선수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차전부터 경직된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장악하지 못했던 KIA 선수들은 4차전까지 무기력한 플레이로 일관하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기에 프로 선수로서 미망한 성적표였다.
SK의 '경험'을 압도할 수 있는 '패기'를 무기로 가지고 있었지만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이를 끌어내지 못했다.
SK의 정신력과 집중력에 완패를 당하면서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승부에서 보여줬던 극적인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패장이 된 조범현 감독은 지난 2005년 초보 감독으로 SK를 이끌고 김성환 감독이 지휘하는 KIA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대결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3연승으로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끈 조 감독은 2011년에는 이렇다할 반격도 해보지 못하고 대항막지도 패지 못한 이만수 '초보 사령탑'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시즌 내내 이어온 선수기용과 작전의 실패로 선수단의 신뢰를 잃은 조범현 감독과 가을잔치에서 무기력한 플레이로 팬들의 마음을 잃은 선수단. KIA의 2011년은 아쉬움으로 저물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선대 세터 김정석 KEPCO 45 유니폼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조선대 세터 김정석 <사진>이 프로배구 KEPCO 45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정석은 1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1-2012 시즌 남자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순위로 KEPCO 45의 지명을 받았다.



서귀포산업과학고 출신인 김정석은 180cm의 단신이지만 빠르고 정확한 토스 실력으로 프로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선대 박성필 감독은 "토스가 빠르고 정확하다. 볼 빠르기는 대학무대는 물론 프로에서도 따라올 선수가 드물 정도로 좋다"며 "프로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재목이다"고 평가했다.
목포대 레프트 박진영은 삼성화재 수련선수 이들을 올리면서 목포대 출신 1호 프로배구 선수가 됐다.
한편 총 11개 대학교에서 31명이 참여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는 24명(수련선수 3명 포함)이 선발돼 역대 최대 지명 기록을 세웠다.
월드리그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대 레프트 최홍석이 1라운드 1순위로 서울 드림시스(옛 우리캐피탈)의 지명을 받았고,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전 때 남자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류중탁 명지대 감독의 아들 류윤식(한양대)도 1라운드 5순위로 대한항공의 호명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청호배 광주·전남배구

15일부터 벌교서 열려

제 43회 청호배 광주·전남배구대회가 15일부터 이틀간 벌교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배구동호인들의 화합과 선의의 경쟁의 무대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청호기후위원회가 주최하며 교직원 및 남녀 클럽부 40개팀 10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대회는 15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16일까지 벌교제일고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배구 동호인들의 열정이 펼쳐진다. 한편 청호배는 벌교 출신 조영호 한국대학배구연맹회장이 창설한 대회로 지난 1996년부터 벌교·보성 지역 대회에서 광주·전남대회를 확대 개최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비 도슨 국가대표 코치로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육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육치의 숨은 공신인 토비 도슨(32·분명 김복식)이 이번에는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수 육성에 힘을 보태게 됐다.
대한스키협회는 한국 선수를 가르치고 싶다는 토비 도슨의 요청을 받고 도슨이 제출한 선수 지도 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프리스타일 대표팀 코치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KIA 선수단 18일부터 마무리 훈련

1.5군 위주로 진행

2011시즌을 마감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8일부터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KIA 선수단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휴식을 취한 뒤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을 실시한다. 마무리 훈련은 1.5군 위주로 진행되며 선수들은 올 시즌을 정리하며 2012년을 준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KIA 타이거즈기 호남 초등학교 개막

18일까지 본양리틀구장

'제8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광산구 본양리틀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시야구협회가 주관한다. 광주·전남·북지역 15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

며 대회 우승팀과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메달이 주어진다. 또 참가하는 전체 팀에게는 시험구 20타를 참가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시상도 이뤄지며 글러브와 야구화 등의 상품도 마련됐다.
한편 지난 7회 대회에서는 광주 서석초가 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lumar 루마썬팅 | 3M 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 가죽시트

세련된 고급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 승용 5인 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 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프 무상점검
- 타이어 앞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역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한국카렌드